

근대 세토의 풍경



1905년 세토지도테쓰도(현재의 메이테쓰 세토선)가 개통되면서 현재의 오와리세토역 주변은 도자기 산업뿐만 아니라 상업·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토가와 북쪽 강변(기타신가이 지역)에는 가마 장인들의 주택과 도자기 도매상이 늘어서 있었으며, 후카가와신사 앞에는 상점가가 즐비하게 들어서 변화했습니다. 현재도 기타신가이 지역에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던 주요 가마 장인·자본가·도매상 등의 상점·주택·공장의 일부가 남아 있어 당시의 융성했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2 오와리세토역

옛날

1931년경의 중심 시가지. 역으로 쓰였던 이 건물은 다이쇼시대(1912년~1926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세토구라 뮤지엄에 일부 복원하여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3 후카가와신사

옛날

쇼와시대(1926년~1989년) 초기의 후카가와신사 앞의 모습. 도자기 장인들의 월급 다음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토를 대표하는 유흥가였던 참배길 주변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지금



4 자야마치

옛날

후카가와신사 참배길 서쪽에 해당하는 후카가와마치의 일각. 사진 중앙의 골목 안쪽에는 영화 등을 상영했던 "후카가와칸"이 보입니다.



지금



골목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1 중심 시가지 원경(서쪽에서)



동일한 시당

1937년경의 중심 시가지. 쇼와시대(1926년~1989년) 초기에 보급된 석탄가마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검게 그을린 마을 전체가 세토 요업이 번성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5 세토스에히로초 상점가

옛날

쇼와 초기(1926~1989)의 스에히로초 상점가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아케이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6 구라쇼초 부근

옛날

1938년의 구라쇼초 주변 모습입니다. 사진 우측에는 한때 이곳에 있었던 시청이 보이며, 그 우측 옆에는 현재 신세기 공예관의 전시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토 도자기 진열관 등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세토구라입니다.



지금



7 골목이 즐비하게 늘어난 에비스바시 주변

옛날

현재의 미야마에 주차장에서 200m 정도 동쪽 편의 풍경. 1935년경의 모습으로 석탄가마의 굴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가마 제작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지금

